

## 사설

#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성스러운 행로 위에 승리만을 새겨놓은 백두산혁명강군이다. 대를 이어 수령님, 최고사령관님을 누리며 반세기만에결전에서 편전편승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과 혁명무력건설에 특기할 역사적사건이었다. 주제적인 혁명무력 건설됨으로써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의 역사의 지 지점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그 개척기부터 반세투쟁의 불멸의 영웅사시기를 수놓아올수 있었다. 류테없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오늘과 같이 김일성친목,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것은 역사의 이념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백두의 위력을 떨치며 자기 발전의 끊임없는 전성기를 펼쳐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승리를 이룩하고 전후의 간고한 시련도 항일의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이겨냈다.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온 장구한 로정에 1970년대는 력사의 분수령을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군대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장점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정신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의 반세기군사전선은 고백되었으리 세계적인 대정치공파속에서 도 우리 식 사회주의붉은기가 힘차게 휘날릴수 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지금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역세게 틀어쥐고 조국과 민족, 우리 식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수를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백승을 떨치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오늘과 같이 김일성친목,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것은 역사의 이념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완수하시라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고 결심입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정신승승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의 령도밑에 창조된 혁명정신을 견결히 계승해나갈 때 혁명위업은 온갖 공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할수 있다.

80여성상에 걸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찬 발전과정은 오직 하나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빛나게 구현해온 긍지높은 역사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의 초석이였고 백승의 보검이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자기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끝까지 충정다하는 고결한 정신이고 자제의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억척만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혁명정신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가장 값진 재부의 재부이다. 위대한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선군대기마다 필승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중위의 제일열사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 첫날부터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에서 혁명의 총대로 온갖 이색분자, 배신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수, 수령보위의 전초선에 서있다. 우리 인민군대인들속에는 타래치는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도 있고 령도자의 안영을 바라며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동맹의 용사들도 있다. 장영으로 부러 전사에 이르러까지 모든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령도자를 철철히 그리며 고결한 충정의 삶을 빛내어나가고있다. 전군에 항일의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한별유위정신, 사령부사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하만 배자 허혜이니 이란이술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23일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께 전달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국 레이 배 당 출신 국회의원 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영국 국회의원 레이 배 당 출신 국회의원 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 상원의원이 23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0일과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대회에는 전군의 모든 비행사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개회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힘찬 정세속에서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조선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격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회의 목적은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이대내내 이어 조선헌공군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새 세대 비행사들을 비롯한 전체 비행사들을 훈련의 불사조, 하늘의 기사대로 더욱 높은 무장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대회가 조선의 항공군강화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토론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대회를유치기간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 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을 만나 주시고, 장정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공군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적들이 무기만능론에 매여달릴수록 사상만능론을 틀어쥐고 사상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상만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비행사들이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도 뚫고 날으는 불굴의 붉은 매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중앙인민방송, 인터넷뉴스통신, 인터넷홈페이지 등 북방, 중대, 참고소식망, 광명망, 중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경축

##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지, 건설지이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백철백승의 기치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 82돐》이라는 글발이 세워져있다.

대회회장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용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원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 영웅, 절경자들, 인민군후방가족들, 원군공로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표와 사회주의 조약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 외국순신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박도훈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령관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인민군인들과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제적군사사상과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체보로 천주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에 각력해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전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인터넷뉴스통신, 인터넷홈페이지 등 북방, 중대, 참고소식망, 광명망, 중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천하제일명장들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4월 25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을 맞은 나라가 끝없는 혁명적열정으로 설레이고 있다. 수도의 기발장식대들에서 당기, 최고사령관이 펼칠 나뭇가지 이채로운 경축관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어디 가나 경축분위기가 휩싸여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 어느 인민이 자기 군대의 창건기념일을 이처럼 열화같은 수령총모임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맞이한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이여, 삼가 웃음을 머미고 오늘 호당보에 모셔진 사진문헌을 경건히 우러르시라. 그리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사를 수놓으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최정에 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이 땅위에 백전백승의 위대한 역사를 안아오신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이 넘치며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놓은 우리 혁명무력의 끝없는 자랑과 영예는 바로 82년전의 백두의 수령과 잇닿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두자부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멸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역사는 세계의 군검설사에 전례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맞이하는 건군절의 환희, 그것은 대대로 천하제일명장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에 실려오는 민족적기쁨이고 더없는 행복감이다. 이해의 건군절을 맞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건군절을 얼마 앞둔 지난 3월 23일부터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는 향방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명에 따라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었다. 한세대에 두 세국주의를 타산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보람찬 병사생활을 하였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어엿한 군관으로 자라났으며 오늘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련합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성장한 새 세대 지휘관들이 건군절을 앞두고 진행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역사에 새겨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단순한 행군길이 아니었다. 우리 혁명무력이 지어온 백승의 행로가 여기에 어려있었고 그 길에 수놓아진 만단사연들이 답사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승ებ히 새겨졌다. 대오앞에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헤치던 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첫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같이 세우고 백두의 수령승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었다.

조선혁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던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비범한 예지로 총대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0(1991)년 4월

중시, 군사중시의 혁명원리를 밝히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때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주력군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혁명이 선군의 길로 승리하게 군대가 조직되어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되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첫 전투에서 승리의 총성을 울린 그대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결출한 백두산장군의 눈보라맞고 보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시어 그 총대로 민족의 거만한 고대를 꺾어버리시고 민족의 존엄과 명도,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해방직 후부터 수십성상 45만 6,670여리의 로정을 이어 조선인민군

를 한번 내보내고 하시었다. 대원들을 거느리고 야간행군으로 소영자령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매복권안에 들어서자 바위우에 올라서시면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었다. 부대는 단숨에 전투를 결속지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활활한 지휘밑에 이룩한 첫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 군인에게 군대가 조직되어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되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첫 전투에서 승리의 총성을 울린 그대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결출한 백두산장군의 눈보라맞고 보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하시어 그 총대로 민족의 거만한 고대를 꺾어버리시고 민족의 존엄과 명도,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해방직 후부터 수십성상 45만 6,670여리의 로정을 이어 조선인민군

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공부대의 3,12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민단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남달리 잘 아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기에 그들은 담사로정의 여러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천출명장을 건군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는가를 더욱 깊이 느끼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뿔뿔산들이 되어 강행군도 하고 야외숙사과정에 백두산의 눈보라맞고 보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배우로 절감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앞장에서 헤치신 백두의 눈보라행군길을 걸으며 그들은 82년전 4월 25일과 함께 총대와 더불어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성스럽게 빛나는 주제 49(1960)년 8월 25일에 대하여 생각

하였다고 이주동성으로 말하였다. 무진 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용은 바로 이날과 잇닿아있는것이다. 천출명장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 군대는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존엄되게 되었다.

선군명장 김정일장군!

이 부름에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선군의 위대한 조국으로 더욱 빛내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한 위인상이 얼마나 세차게 빛나고있는것인가. 뜻깊은 건군절에도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천이아버지정을 부여주시었고 초도야 전투, 철령과 오성산 등 선군의 병사들을 찾으시어 백두의 칼날을 여에게 버려주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숭고한 뜻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이익을 수호하시라고 주체의 내나라, 사회주의 내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어주시었다.》

선군! 최후승리의 깃발을 앞당겨지고있는 력사의 시기에 그 이름 조용히 불려보느라던 쫓겨지는 격정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총대가 없었다면 어찌 경이적인 오늘과 더더욱 영광넘칠 대일이 있었겠인가. 지금도 돌이켜보는 것조차 가슴쓰리다.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 미제국주의 자들과 그와 야합한 자들의 압살과 경제붕괴책동, 거둬지는 자연재해... 남들같은 열백번 아니 수천수만번도 더 쓰러졌을 그 모진 고난속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을 여세로 일떠세워준 힘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마련해주신 필승의 보검인 선군이었다.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주제 83(1994)년 12월 31일에 올려

피건 력사의 총성이 끝없이 울리고있다. 이날 어느 한 사격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만장천 기관총과 자동보총이 놓여있는 사격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이윽고 사격과지에 이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자동보총을 틀어잡으시고 근엄하신 눈빛으로 목표판을 바라보시었다. 그이의 안광에는 철의 의지가 번뜩여있다. 잠시후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아무진 총성이 울려져있다. 마다나... 멀찍이 의지가 어린 련발사격과 함께 앞에 서있던 목표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원이 거만 총을 여세로 틀어잡으시었다. 사격장에는 또다시 기관총 소리가 힘있게 울려져있다. 하늘땅을 울리며 메아리쳐간 백두산천출위인의 신념의 총소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변함없는 선군의지를 력사에 알리는 장엄한 피서적이었고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를 주시하던 세계앞에 주는 명확한 대답이었다. 다음날인 주제 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의 총성을 상징에 안으시고 다박출초소에 거룩한 명도의 자욱을 새기시어 우리는 자신이 택한 선군의 한길로 여세로 걸어갈것이라는 것을 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께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으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그이께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이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인공 지구위성이 려이어 우주로 날아

오르는 장엄한 피서적이 힘있게 울려져있을 때였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제왕처럼 날치던 제국주의우두머리의 거만한 고대를 꺾어놓고 련전전승하는 눈부신 승리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가는 놀라운 오늘의 현실도, 이 땅에 끝없이 울려져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울리시었던 장엄한 피서과 더불어 선군이 안아온 값높은 열매인것이다. 하기에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마나면 길을 헤치시던 잊지 못할 그 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이런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나도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을 때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몸을 가눌수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수령님께서 말기 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로 결연히 일어나 존엄한 난국을 맞받아싸고나왔다. 아마 우리가 수령님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있었다면 적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만기를 걸었더라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거기서 끝장나고말았을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억울로 버려주신 선군의 보검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을 지켜주시는 보검이다. 혁명의 언덕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올리신 력사의 총성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이 세상끝까지 더 높이 메아리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시던 날에

### 사상으로 굳건한 총대

세계사리론에서는 오랜 세월 무기중심론이 지배되어왔다. 그러나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를 조종하고 다루는것은 사람, 군인이며 사람이 없는 무기는 쇠붙이와 다름없다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71(1982)년 4월 25일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군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할렘적요구로, 인민군대앞에 나쁜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 부름속의

이것이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보시며 훈련에 전진전투하는것을 군인의 참된 삶의 보람으로 여기게 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어, 무기를 조종하고 다루는것은 사람, 군인이며 사람이 없는 무기는 쇠붙이와 다름없다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71(1982)년 4월 25일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군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할렘적요구로, 인민군대앞에 나쁜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 사연깊은 군복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군복을 만들어주시기로 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0대의 청년장군이시었다. 출중하신 그 모습에 어울리게 멋진 새 군복을 지어주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재봉대원들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그런데 어느날 재봉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대원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었을 때 자신께서도 새 군복을 입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군복제작을 엄하게 만류하시었다. 그때의 안타까움이 아직 가슴속에 응어리로 맺혀있는데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것도 정규적력

을 훈련을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보시며 훈련에 전진전투하는것을 군인의 참된 삶의 보람으로 여기게 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어, 무기를 조종하고 다루는것은 사람, 군인이며 사람이 없는 무기는 쇠붙이와 다름없다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71(1982)년 4월 25일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군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할렘적요구로, 인민군대앞에 나쁜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뜻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이렇듯 병사의 때마침 군복이라는 말에도 소중히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김준혁**  
**본사기자 리남호**  
이것이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보시며 훈련에 전진전투하는것을 군인의 참된 삶의 보람으로 여기게 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어, 무기를 조종하고 다루는것은 사람, 군인이며 사람이 없는 무기는 쇠붙이와 다름없다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사상적 강군으로 키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71(1982)년 4월 25일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맞는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군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할렘적요구로, 인민군대앞에 나쁜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

# 조선 인민군은 영원히 백두의 총대 혈통을 이어가며 무적강군의 위용을 떨칠 것이다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 밑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승전포성이 높이 울리고 백두산대국의 위용이 힘겹게 떨쳐지고있는 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총참모장 82돛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백두산총대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형성된 자기의 혁명적본대를 순결하게 계승하며 장장 80여년상 오직 선군혁명의 한걸음도 전진하여온 여기에 우리 건군역사의 근본특징이 있고 인민군대의 불멸성이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건군절을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의 위엄에 의하여 당의 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이룩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대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용, 붉은청년군대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준엄한 항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쳤으며 오늘도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항일혁명렬사들과 조국방위군, 조국부흥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영예군인들과 계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대의 귀중함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인민군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세기와 세대를 이어 강화발전되어온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가 걸어온 피어린 투쟁의 길에도, 영광받친 승리의 길에도 백두산장군들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고 우리 혁명무력이 이룩한 모든 위훈과 업적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어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대의를 밝히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주체혁명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절세의 선군령장이 이끄는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총대 증시, 군사증시의 선군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명도하여오신 장구한 역사적행정에 자위의 군사로선을 일관하게 제시하시고 전인민당의 힘찬한 걸음 해치시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키우시고 그 강화발전의 만년토대를 쌓으셨습니다.

지난날 번번한 총대가 없어 식민지망국노로 굴러떨어진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운명개척의 강력한 보검을 안겨주시고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었으며 현대적국방공업을 창설하시고

위대한 총대가 백두의 붉은 칼로 더욱 예세게 벌어져지고 절반적혁명무력의 위력이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최고사령관과 사상과 뜻, 정을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가 되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군실사와 병군술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파사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선군혁명령수의 결정적담보가 마련된 특기할 민족사적경사입니다.

수령에 대한 총중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며 현대군사자의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세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두시어 우리 혁명무력의 성격과 본태는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 80여년동안 위대한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계건군실적사에 전례없는 자랑찬 위훈의 년대기를 수놓아 왔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역사는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응위하는 육탄정신, 수령의 권위를 지어 맹수와 같이 투쟁하는 혁명적결결성, 당의 명령지시라면 천길물속과 작렬하는 지뢰밭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집행해내고야마는 결사판결의 정신, 이것이 세대를 이어오는 우리 군대의 고귀한 전통입니다.

우리 군대는 항일의 나날에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사령관동지를 한몸숨바쳐 응위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결사전으로 나갔으며 그처럼 어렵고 고난의 행군에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였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였지만 인민군대는 오늘도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김정은제일령수대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평도만 받는다》는 신념의 노래높이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는 오직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전진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입니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첫 총성을 높이 울린 때로부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목숨바쳐 사수해온 조선인민군과 같은 혁명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한 불멸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이 력력한 인민군대들과 최대열점지역들까지 찾으며 독자적인 전략기술과 진법들을 밝혀주시고 병사들을 한몸에 안아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은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강화해나가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총대가 백두의 붉은 칼로 더욱 예세게 벌어져지고 절반적혁명무력의 위력이 비상이 강화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최고사령관과 사상과 뜻, 정을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가 되고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군실사와 병군술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파사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선군혁명령수의 결정적담보가 마련된 특기할 민족사적경사입니다.

수령에 대한 총중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며 현대군사자의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세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두시어 우리 혁명무력의 성격과 본태는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 80여년동안 위대한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계건군실적사에 전례없는 자랑찬 위훈의 년대기를 수놓아 왔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역사는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응위하는 육탄정신, 수령의 권위를 지어 맹수와 같이 투쟁하는 혁명적결결성, 당의 명령지시라면 천길물속과 작렬하는 지뢰밭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집행해내고야마는 결사판결의 정신, 이것이 세대를 이어오는 우리 군대의 고귀한 전통입니다.

우리 군대는 항일의 나날에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사령관동지를 한몸숨바쳐 응위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결사전으로 나갔으며 그처럼 어렵고 고난의 행군에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였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였지만 인민군대는 오늘도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김정은제일령수대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평도만 받는다》는 신념의 노래높이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는 오직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전진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입니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첫 총성을 높이 울린 때로부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목숨바쳐 사수해온 조선인민군과 같은 혁명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역사는 치렬한 반제국주의투쟁의 전초전에서 언제나 백전백승을 떨쳐온 가장 빛나는 위훈의 역사입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발목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격멸하여 빼앗긴 나라를 찾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함으로써 위대한 령장,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세계를 들레온 《투에블로》 호사건과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추종들의 세 전성도발책동과 핵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신 인민군대의 공적은 우리의 선군혁명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지난 날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우리의 사상과 계도를 영예롭게 수호한 인민군대는 오늘도 반제군사전선의 제일선에서 적들을 제압하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습니다.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가지고있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완비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적무강한 위력은 계속되는 침략자들을 전멸케 하고있습니다.

미제의 강권과 전횡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국가주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제국주의반동들에게 련속 된타격을 안기며 나라의 자주국가건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 위력하고 인민군대가 강하기때문입니다.

조선인민군의 역사는 조국의 변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와 헌신의 역사로 빛나고 있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장엄한 건설의 년대마다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용으로 조국명우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으며 오늘 21기치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미시령속도》로 도처에 사회

주의선경을 펼쳐가고있습니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인민의 군대라는 숭고한 자각을 간직하고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의 꿈과 리상을 쫓아위기고있는 병사들을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백두령장들의 탁월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의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로 세계를 없는 우리의 군대단결이 이룩되고 경제가 새로운 활력에 넘쳐 비약하고있으며 사회주의몽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백승의 위력을 떨치는 전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건설하신것은 백두의 천출령장들께서 이룩하신 영원불멸 할 업적으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이 불멸의 강군을 키워내며 위대한 당의 명도를 받는 군대만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수 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있는 우리 식의 공격 력사의 귀중한 총화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합같은 호모의 마음을 담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혁명 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백두의 선군위업을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며 총대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이 빛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업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8대째도 8대째도 8대째도 인민군대를 백백으로 강화해나가기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연구계속하고 결결히 응호고수하며 혁명의 만년 제보로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앞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오늘의 7련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인민군대 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령권을 철저히 세우 전군의 일일단결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결사판결하여야 하였습니다.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최후승리를 위한 싸움준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야 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현명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완벽한 신진 장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있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전군강화의 중심고리인 총대강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여 모든 중대를 쇠소리나는 정예대로, 관병의 뜨거운 정과 풍성한 생활이 넘쳐나는 병사들의 정은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군인협동작전에 서 언제나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어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에서 새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선군시대 건설의 대연기를 앞장에서 열어어나가야 하였습니다.

군인일치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 방향의 일치, 관병의 일치, 군인대간의 위력으로 혁명적전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전진향응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하였습니다.

모두나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일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는 군사들의 제일국사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국방공업발전이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 나라의 방위력을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우리 당의 전진무장화, 전군요새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보루로 튼튼히 다져야 하였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단결의 공격기상을 따라배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몽명국건설의 레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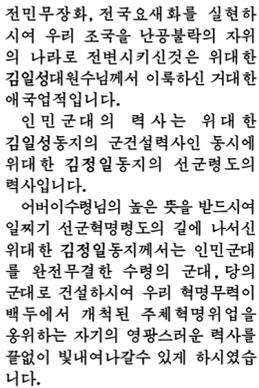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천황육척처럼 사랑하고 원군전통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온 사회에 영예군인들과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성실성으로 돌봐주는 미풍이 차차적으로 하여야 하였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괴뢰들의 극악한 반공화국수호동으로 하여 언젠가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무모한 능력을 갖춘 만능의 지휘관,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하며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였습니다. 만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신성한 땅과 하늘,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 역세게 버리어온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 침략자들을 무지비하게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 고야말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휘둘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앞장있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나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일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갑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 혁명렬사릉보존소창립 60돛 기념보고회 진행

혁명렬사릉보존소창립 60돛 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인과 보존소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혁명렬사릉보존소 초규정에서 배속권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소장 김태환, 작업반장 정명일, 판리원 황봉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혁명렬사릉보존소창립 60돛을 맞이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주체 43(1954)년 4월 5일 보존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60년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사랑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역사였으며 당의 령도업적을 응호고수하고 빛

내기 위한 총성의 나팔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혈전의 나날에 너무도 일찍이 떠나간 동지들을 잊지 못하시어 손수 추도문도 쓰시었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혁명렬사릉을 꾸려주시기 위해 대성산을 오르내리시면서 통지라도 잡아주시었다고 말하였다.

혁명렬사릉에 안치할 려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혁명에 참가한 년대, 희생된 날자와 장소까지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들의 반신상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세우도록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작각 붓마루에 혁명렬사릉이 일떠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전사들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혁명렬사릉개척작업공사를 발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려사릉형성안으로부터 려사들

의 반신상을 새롭게 형성하며 대문과 도로형성문제에 이르러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혁명렬사릉을 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혁명렬사릉에게 돌려주시신 숭고한 사랑과 의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더 두터워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렬사릉보존소가 지난 60년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응호고수하고 려사릉보존관리와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빛내어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보존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뜨거운 총성의 한마음으로 항일의 언성열을 김정은동지의 동상을 넘쳐나 밝고 정중하게 모시고 혁명사적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려사들

원형유역을 정성들여 꾸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난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총성,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며 원수님을 따라 선군혁명전선리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당의 진정한 전우, 혁명동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혁명렬사릉을 더 잘 보존관리하여 려사릉이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을 지켜신 강사들은 항일유격대나 팔수가 되어 혁명전통교양을 공세적으로 벌림으로써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회 주체103(2014)년 4월 19일

###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을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 |   |  |   |   |
|---|--|---|---|
| 3중3대혁명붉은기<br>창성식품공장<br>2중3대혁명붉은기<br>자강도정보통신국 시외직장<br>김해체철련합기업소 자동차사업소<br>무산군 문합협동농장 제2작업반<br>철도성 정보기술연구원<br>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br>집적회로시험공장 | 3대혁명붉은기<br>김정숙군 신상협동농장 제1작업반<br>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남새제4작업반<br>강남군 장교협동농장 농산 | 제3작업반<br>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br>고압출력터빈제조장<br>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br>직동성탄광사대 건설중대<br>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br>평원농악공작<br>평성의학대학 제2의학부<br>운전군 가산협동농장 제2작업반<br>정주시 일해협동농장 제4작업반<br>선천군 진도협동농장 제3작업반<br>염주군 남암협동농장 제4작업반 | 평안북도정보통신국<br>봉천군 황룡협동농장 제7작업반<br>배천군 봉화협동농장 제2작업반<br>사리원시 만금협동농장 농산<br>제2작업반<br>북산군 덕흥협동농장 제3작업반<br>통림탄산사업소 후지작업소<br>회양군 전곡협동농장 제2작업반<br>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제5작업반 |
|---|--|---|---|

말겨진 혁명파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의문

#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김정은

## 군민대단결은 조선의 힘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무엇인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를 강대국이라 부른다.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 나라》로 필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핵무기이다. 《해택》이라는 것이 미제 호전파들의 사교이다.  
오늘 우리에게 미제의 핵동맹자들은 순간에 먼지로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군민대단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 투쟁의 완결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굳게 결합되고 있으며 온 사회에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 넘치고 있습니다.》  
선군조선의 역사를 이끄는 군민대단결 승리하여 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혁명적 개척기로부터 오늘

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우리는 군민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해 왔다. 발흥초기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힘의 원천도 군민대단결에 있었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에 있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결친 사회주의 대건설시기,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와 오늘의 강성국가건설시기에 이르기까지 미제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어 오고 있는 선군조선의 만년제국인 군민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을 떠돌이의 바다에서 일떠세우고 필수의 신심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빛나는 선군령도 하에 이 땅에 굽이친 새로운 투지와 열정은 얼마나 격동적이지 않은가.  
온 사회에 혁명적군정신, 군인기개를 차넘치게 하자. 이것은 류체없는 시련속에서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엄숙한 요구였고 우리 당의 의지였다.  
혁명적군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힘찬 투쟁속에 강제정신이 창조되고 성장과 라파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올랐으며 이 땅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일떠섰다.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존엄 떨칠 수 있었던 것도 군대와 인민이 허리를 졸라매며 한마음 한뜻으로 선군의 길을 걸어 국력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군민대단결이 없었다면 우리가 자주적인 위엄이 되느냐,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편전전승의 기적을 안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군민대단결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가질 수 없는 자랑이고 백성의 보람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안아오신 우리 조국의 자랑한 현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만 평도 밑에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평양시안의 공원과 유원지들, 보물강과 합창강이 일신되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이 일떠섬으로써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번모된 수도 평양의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한 인민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의 결실체이며 군민대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무도영웅방어대와 장제도방어대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에서 편전전승의 기적을 안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군민대단결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가질 수 없는 자랑이고 백성의 보람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안아오신 우리 조국의 자랑한 현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 궁지로 간직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인민의 길을 걷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영예로 여기고 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이 땅에서 울리는 소식들은 인민군대의 수령계사용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살려내는 우리 인민들의 열망이 낳은 시대의 메아리이다.  
바로 그 메아리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한목숨 바쳐 구원한 신홍쌍의 나이런 소년단원의 모습도, 한몸을 동지들을 위한 길에 바친 김덕평연환기업소 굴광광산의 한 재광공도, 폭발하는 시한탄을 몸으로 막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탑과 인민의 생명체산을 구원한 인민보안원들의 군상도 있다.  
천만민군이 평도 밑에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군민대단결, 이것을 과연 핵무기로 깰 수 있었는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피와 숨결을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원인!  
부활수록 뜻이 깊고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겁다. 간고한 항일의 혈전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사상에 든든한 뿌리를 두고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우리 인민군대의 전통적기풍—  
그 자랑스러운 기풍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민의 재부가 일떠섬고 얼마나 크나큰 인민의 행복이 마련되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위해서! 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인들은 이 땅의 곳곳에 많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물들을 일떠섬다. 문수물놀이장이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도 있다. 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군대는 국토방위의 사명을 자기의 기치로 내세운다. 이런 사명을 안고 예로부터

군대는 물질적부족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의 나날이나 오늘이나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영광과 이익을 수호하며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혁명의 1세대들은 무엇보다 사정없이 산중의 화전에서 감자 몇알을 캐고도 사파의 편지와 함께 본값의 몇배나 되는 돈을 받머리에 놓고 갔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락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뺨쳐산출신의 편대장이 이끄는 적후부대는 어느 한 마을을 해방하고 농민들이 아직 낱알을 거두어들이지 못한것을 알자 그들은 도와 위함을 무릅쓰고 가을걷이를 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를 받들어가는 길에서 우리 인민군인들은 풍랑사나운 날마다에서 뜻하지 않게 조난을 당한 인민들과 배를 한몸의 위함을 무릅쓰고 구원하고 농장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군민대단결 건설해 주셨으며 주둔지역의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었다.  
인민들의 생명체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달리 뛰어든 인민군인들의 모습은 조국방위도 이 땅을 지키는 자의 기치로 내세운다. 이런 사명을 안고 예로부터

있는 김정은평양방직공장합숙소, 그곳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인민군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인민을 돕자!  
그곳에서 인민군인들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 땅에 인민의 행복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길에서 불패의 혁명군인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자기들의 새 보금자리를 일떠세우고있는 인민군인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방직공녀들을 대할 때마다 웃음으로 마다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한 우리 인민군인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방직공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해준것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인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행복을 가꿔주고 지켜주는 것을 보람으로, 임무로, 사명으로 간직하고 농장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군민대단결 건설해 주셨으며 주둔지역의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해주었다.  
인민들의 생명체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달리 뛰어든 인민군인들의 모습은 조국방위도 이 땅을 지키는 자의 기치로 내세운다. 이런 사명을 안고 예로부터

남포항구려관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군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인들을 친열육처럼 사랑하고 불심량면으로 성의껏 원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와 남포항구려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던 그 나날 항구려관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삶의 요람이고 생명의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한복속까지 결사옹위할 열의로 끓어올랐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을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열심있게 참가시켰다. 모두가 인민군인들과 한전호에 선심장으로 원호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갖 걸음을 떼고 그들의 원군길은 날과 달을 이어가며 20여년 세월 줄기차게 이어졌다.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짧 시간을 리용하여 부업생산도 앞장섰고 집집마다 기르면서 한가지 원호물자라도 마련하려고 누구나 아들딸을 노력하였다. 이열은 이렇게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해마다 평균

10차이상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 나날 이쪽 단위의 종업원들과 초소의 군인들 사이에 꽃피는 이야기는 그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  
언제인가 초소의 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장에 동원되었을 때였다. 퍼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 병사의 생일을 잊지 않고 눈보라를 헤쳐다 건 설장을 찾아갔다. 수십명 군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20여년세월의 흐름속에 이 꽃피는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적지 않게 바뀌었지만 집단적 원군열의는 더욱 뜨거워졌고 원군의 아름다운 뜻은 변함없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지배인,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부터가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조국의 천리방진을 지켜선 초소의 군인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친아들딸들이라고 하면서 한해경, 오미경, 리혜경, 허희경, 강봉화, 김병희동무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 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이들의 원군길, 이런 애국자들이 온 나라에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기에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 아니겠는가.  
특약기자 주찬선

초소의 병사들을 위한 마음  
혜산시 해관동에 사는 조덕정동무  
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전연 초소를 찾으신다고 조덕정동무의 아들 김철성을 비롯한 초소의 군인들을 사방의 한몸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그날 그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두어 잔을 기울 수가 없었다.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영광의 초소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조덕정동무는 더욱 분발해나갔다. 그는 며칠후 또다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초소에 보내주었다.  
조덕정동무의 소행을 알게 된 혜산청년회 부영장 박희화, 혜산시 선봉초급중학교 교장 리선화동무들이 찾아왔다.  
박희화동무는 《그런 좋은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저희들도 마음을 합치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며 돌면서 마련한 원호물자를 내놓았다. 리선화동무 역시 조덕정동무의 손목을 꼭 잡으며 《우리 학교에서는 수백명의 위문편지를 마련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최전연초소에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는 병사들의 대오는 늘어나고 있다.  
당인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행선 전초가를 마음속에 안고 가는 조덕정동무, 그러리 해설사가 내리였어도 그는 오늘도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 원군길을 위업없이 걸어가고 있다.  
특약기자 전철주

원군길에 바치는 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한 병사가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편지를 보아주시고 조선인민군 병사

원군길에 바치는 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병사가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편지를 보아주시고 조선인민군 병사

원군길에 바치는 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병사가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편지를 보아주시고 조선인민군 병사

원군길에 바치는 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 병사가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편지를 보아주시고 조선인민군 병사



애국의 뜨거운 마음 안고 원군사업을 잘 하고 있다. —칠월식당 로동자 김철성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원전군 관해리당위원회에서 리안의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애국고 내세워주는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는것을 자기들의 용당한 본분과 의리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에 리당위원회의 한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원전군 관해리당위원회에서 리안의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애국고 내세워주는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는것을 자기들의 용당한 본분과 의리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에 리당위원회의 한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원전군 관해리당위원회에서 리안의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애국고 내세워주는 전령로병,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는것을 자기들의 용당한 본분과 의리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에 리당위원회의 한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사랑의 회람  
인민들에게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구석을 모르는 은혜로운 햇빛이어서 온 나라 집집에 속속들이 따뜻하게 비쳐왔다.  
정성 집심산물 막바지에 산다고 하여 그 햇빛 언제 한번 스쳐지나친 있었는가. 이 땅의 수백수천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따사로움 그 품속에 놓이지 않았던가. 하여 김옥경의 어머니도 사랑의 그 품에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맡기게 되었다. 미구에 그의 신상에서는 가슴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그는 연구소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기가 걸친 발로 왔던 것도 있고 공경받는 연구소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 이렇게 회한하고 훌륭한 의로봉사까지,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어 설계도 시공도 설비도 최상의 수준이라니 그이께서는 어쩌면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됩니까(이제 그만 말아야...)   
그러한 너로서, 공민으로서 나는 나중에 가닿는 곳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였다. 하지만 김옥경의 어머니는 아직

#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려갈 비상한 열의

## 이들처럼 출어전 준비를 착실히 하자

### 남포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더 많은 어구를 갖추니 생산실적이 오른다. 이것은 서해바다를 종횡무진하며 생산을 늘리고있는 남포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서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알고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투릉식으로 개조된 수산사업소의 안강방선들은 최고 3톤까지의 물고기잡이그물이 갖추어져있었다. 그만큼 수산물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창조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얼마전 남포수산사업소를 찾은 우리는 당의 수산정책관들의 기수가 되어 투릉하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선에서 몇 가지 반발만을 한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들을 위하여 머리끝과 손가락을 잘라내며 단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처럼 불리워드리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어머수령님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이곳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

목표를 높이 내세웠다. 그 절정을 위한 배수리와 어구준비, 가공장건설 등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그중에서도 일군들은 어구확보를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어장을 차지한 안강방선들의 기항회수에 따라 어획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와 고기잡이수단으로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돌파구였지만 어구문제를 자체로 풀지 못하여 지난 시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지배인 강정승동무는 종업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사람이 하루에 뜰 수 있는 그물량을 분석하여 자료적으로 내놓았다.

어항기철에는 가공작업반과 참모부서, 기타 로력까지 합쳐 60명의 로력배치가 나온다. 그들이 하루에 평균 6천근정도의 그물을 뜬다고 볼 때 그 량은 결코 작았지 않다.

직종별, 대상별기능수준을 분석하여 계산을 작한 후 그물과 조립제 설명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자기들의 무한한 힘을 자각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당정책관들의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일 때 몇몇일 일이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어구문제를 풀수 있는 좋은 조직사업이 안받침되어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사업소에서는 먼저 모든 녀성종업원들에게 로동경쟁에 준하여 그물뜨기과제를 주었다. 그리고 몇몇씩 분산적으로 실정에 맞게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계기때마다 평가사업을 따라세워 경쟁심을 불려달았다.

여기서 혹 이런 문제가 나설수 있다. 전문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기잡이그물의 앞부분과 뒤부분의 그물크기가 서로 달라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어구의 균형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 지배인이 내놓은 방안이 그물크기에 따라 작은것과 큰것을 전문으로 뜨는 사람들을 고착시키고 오랜 경험을 가진 기술공들을 한사람씩 붙여주는 합리적인 로력조직이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이런 경우 눈썰미가 빠른 녀성종업원들은 하루이틀을 지나면서 손쉽게 그물을 땀으며 그 질도 공작제품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그물크기가 같은 작업단위의 종업원들이 서로 모여 경쟁적으로 일손

을 다그치도록 로력조직을 짜고 드니 작업도 능률적이었다. 장소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었으며 큰 몸을 들이지 않고 값싸싼 어구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니 기업관리에도 리익이 되었다.

두릉식으로 안강방선을 개조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물고기잡이그물을 더 많이 쓰고 바다에 나가야 하는 조건에 맞게 고기배의 개조작업을 배수리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작전하고 그물뜨기작업의 동력보장을 위한 연유수비를 줄일 목적으로 배기판과 분리된 출력이 작은 발동기를 새로 갖추도록 하였다.

배수리에 필요한 자체문제는 내부예비팀구동원사업을 방법론적으로 짜고들어 풀어나갔다. 실제로 긴장한 철관문제는 못쓰게 된 고기배와 제관품들을 해체하여 풀었다. 그리고 부족되는 설비들은 자체공무기지에서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배기판과 같은 중요설비들은 대외적으로 투자를 하여 새로 마련하였다.

이렇게 하니 배수리의 집과 속도를 다같이 높일수 있었다. 사업소에서는 어항기철에 어로공들은 배수리를 다그치도록 하면서 녀성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량의 그물을 수

리하면서 지난 시기 로력이 부족하여 1물밖에 만들지 못하던 안강방선그물을 7물이나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보물창고만 단의 물고기잡이준비를 갖추었다.

요즘 날로 높아지고있는 물고기잡이성과를 놓고 강경수지배인은 이렇게 긍지높이 말하고 있다.

《성파의 요인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함께 조직사업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교한 인민사랑이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어나도록 하겠읍니다.》

남포수산사업소에서 지난해보다 2.5배로 높아진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시작부터 엄격수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업소에서는 4월 말까지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때보다 수백 t의 수산물을 조산하였다.

이것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선에서는 수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정책관들을 위한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불같이 달려 투쟁할 때 어디서나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전성삼

##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 승리는 전투시작전에

지난 겨울 공무부 로동자들앞에는 수십척의 고기배를 수리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왔다.

긴장한 전력사정과 자체보장조건을 극복하고 출어준비를 보충수리할 때 당장 끝내겠다는 심장의 열정이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배수리전투장을 총포성 없는 결전장으로 생각하자. 전기가 부족하면 한물

이 발전기가 되어서라도 기어이 수리기일을 보장하겠다. ...

맹세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주물복보장과 부속품과 공을 맡은 로동자들은 집에 오가는 시간까지 아끼고 스스로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며 돌격전을 벌였다. 전기가 부족하면 발동기를 돌려 필요한 많은 량의 부속품을 가공하였다. 조명공들은

한겨울의 강추위를 당의 수산정책관들로 노련한 직장의 열기로 녹이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선체수리를 맡은 로동자들은 배에 보온담을 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보수전투를 벌였다. 고기배들의 선체와 기관이 새겼거나 다름없이 정비보수된 불같은 투쟁의 나날이 있어 오늘날의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져서게 되었다.

### 어장의 전투지휘선

까지 곁하게 되어있는 지휘선에서는 어로공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신적정

치사업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동시에 과학적인 어로전의 중심, 결된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나가는 바다우의 현장참모부의 역할도 수행한다. 한마디로 사업소지휘일군

들의 위치가 바다위로 옮겨진것이다.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정 치사업은 벌리는 당일공들과 사해의 물고기잡이명수로 소문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화선식정들을 만나자면 선단사이를 오고가며 어로전투지휘를 벌리는 이 배에 올라야 한다.

### 양보를 모르는 경쟁열의

어느 선단의 생산실적이 더 높은가, 이것은 1선단장 장광환, 2선단장 강남, 3선단장 장광철동무들이

판심하는 문제이다. 이런 열의는 3선단

의 고기배수는 다른 선단들에 비해 적었다. 어느날 사업을 갖기 시작한 3선단에서는 사업소의 책임일군을 찾아

《다른 선단들과 같은 척수의 고기배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고기배의 척수에 따르는 생산량이 경쟁도표에 반영되는데 무슨 상관이요?》 ...

그러나 문제는 다른 선단들보다 무어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앞서나가는 선단들을 따라잡겠다는 3선단장의 일목숨에 있었다. 이

렇게 되어 못지 않은 새가 얼마전에 드넓은 바다로 나갔다. 또 한가지 일하는 생산실적이 시원치 않다고 하던 1선단의 고기배들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여 우승은 문제없다고 자랑하던 2선단을 깜짝 놀래운것이다. 앞서나갔던 3선단에서 이 선단이 단기간회수하는 만선의 열을 먼저 날리겠다는 열의로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기배들을 현대화, 만능화하고 과학적인 어로방식을 널리 받아들여 물고기잡이 많이 잡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통천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에 기어이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잡도리를 든드리고 배수리와 그 수리전투에 힘을 날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최근에 덩장운반선 5척을 새로 무었으며 지난 2월에 드디어 한민 해군건설을 건국하여도 할수 있게 개조하고 배의 기관능력도 높였다. 더구나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배수리능력이 커진것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배를리

대를 특색있게 건설하여 배수리속도를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지금 하나의 배를리는데 여러척의 배를 단련에 올려놓고 수리한 다음 종횡으로 전수할수 있게 배수리능력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동자들이 집체적인 힘과 지혜가 담긴 배를리대안을 내놓았다. 처음에 해보는 일이라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생산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사업소의 일군들이 현장에서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대건설을 시작할 때 적당도 못되는 사이에 기본조도 완성하고 배수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모든 배들에 대한 중수수리만이 아니라 배수리까지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여 수리기일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발문기

원산에서 위치한 동해어로삼 새대건설은 바다에 떠있는 고기배를 련상게 하였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 척후병들은 바다를 손금보듯 주시한다

### 수산성 동해어로삼새대를 찾아서

원영을, 최연년 단의 과학원정대원들은 바다에 떠있는 고기배를 련상게 하였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원영을, 최연년 단의 과학원정대원들은 바다에 떠있는 고기배를 련상게 하였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원영을, 최연년 단의 과학원정대원들은 바다에 떠있는 고기배를 련상게 하였다.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어항기철을 6배로 늘린 비결

## 봄-여름철 주요회유성물고기들의 어항전망

수산성 해당 단에서 보내온 올봄-여름철 주요회유성물고기들의 어항전망분석자료에 의하면 여러 물고기들의 회유량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곱추송어회유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이로 하여 그 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다. 밀치생산도 뚜렷하게 늘일수 있는 전망이 내다보인다. 지난 시기 밀치생산에서는 봄-여름철 연안산물들이 영향으로 덩장에 의한 물고기잡이실적이 보장되었는 상태였지만 올해에는 연안수역의 해안조건으로 보아 덩장어업보다 자망, 건착, 2척 트롤어업을 기본으로 잡이할 수

행하면 많은 멸치를 잡아들일수 있다. 멸치회유량이 일정하게 많은 조건에서 어기는 5-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어장은 2-25n.mile안쪽 전반적수역에 넓게 분포될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의 모든 수산사업소에서 봄-여름철에 회유성물고기들을 많이 잡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것이다.

어항전망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4일 철도청기공 제 29차 총사령회의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위업

수행,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세위원들에 대한 다함없는 정조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가호 엘레나 니콜라예브나 경제발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사할린주 정부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전호에 선 전우들이였다

##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로씨야 사할린주정부사이의 무역경제협조공동 실무그룹 제7차회의 의정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로씨야연방 사할린주정부사이의 무역경제협조공동실무그룹 제7차회

의 의정서가 24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

무역촉진위원회 성원들이, 사할린주에서 로씨야 사할린주 정부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 구바방문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출발

구바를 방문하기 위해 김동진 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령회의에 참가할 여러 나라 철도대표단도 도착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령회의에 참가할 벨라루씨, 우크라이나, 에스도니아, 헝가리 철도대표단들이 24일 비행기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그들은 한전호에 선 전우들이였다

남기고 간 생지행의와 군화를 쓰고 또 쓰고있다. (아,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고마운 녀성전우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또 다른 전우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한전호에 선 전우들이였다

이들의 생지행의와 군화를 쓰고 또 쓰고있다. (아,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고마운 녀성전우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또 다른 전우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국제력기련맹 위원장 도착

타마스 아얀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와 벨라루씨에 가는 조선민주녀성 동맹대표단 출발

로씨야와 벨라루씨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로씨야와 벨라루씨를 방문하는 재춘희 녀성동맹위원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